# 강릉 강문동토성의 축조기법과 성격

심 정 보*

〈목 차〉

Ⅰ. 머리말
Ⅱ. 고고학적인 조사
Ⅲ. 축조기법에 대한 검토
Ⅳ. 강문동토성의 성격
Ⅴ. 맺음말

국문요약

강문동토성은 강원도 강릉시 강문동 265번지 일원에 해당하는 죽도봉에 축조되어 있는 토성이다. 이 토성의 존재가 확인되기 이전에 이미 경포대 현대호텔이 건축되어 운영되고 있었으며, 평창 동계올림픽을 대비하여 호텔건물 확장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고고학적인 조사가 시행되었고 그 결과 토성의 전모가 밝혀지게 되었다.

이 토성의 입지적인 조건은 동쪽으로는 바로 동해에 면하여 있고, 서쪽과 북쪽으로는 경포호에 접해 있으며, 남쪽으로는 경포천이 경포호에서 동해로 흐르고 있다.

강문동토성은 죽도봉의 정상부에서 사면 하단부에 이르기까지 유사판축 및 판축기법에 의하여 체성을 축조하고 대지를 조성하였음이 확인되었다. 이 토성의 남벽 서단부 발굴 Tr.2에서 확인된 축조기법은 체성 외벽에 벽심을 조성하고 이에 의지하여 토루의 규모를 키워나가거나, 문지를 조성하는 기법은 증평 이성산성의 사례와 유사하며, 중심토루를 축조한 후 중심토루 내외벽에 덧붙여서 체성을 구축하는 공정은 풍납토성의 축조사례에서 찾을 수 있어 백제와의 친연성을

이 논문은 2012년도 동양문물연구원의 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 한밭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www.kci.go.kr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또한, 토성 내에서 백제 성곽에서만 확인되고 있는 대형 플라스크형 저장시설이 5기가 확인되고 있어 더욱 그러하다고 하겠다.

이 토성은 이사부가 실직주 군주로 부임한 505년에서 하슬라주를 신설하고 군주로 부임한 512년 사이에 축조되었을 것으로 파악되며, 이 시기에 전선(戰船)의 건조와 군사들의 훈련도 아울러 이루어졌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하여 512년에 이사부가 하슬라주 군주로 부임하자마자 우산국을 정벌할 수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을 해명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삼국사기』 및 『삼국유사』에는 이사부의 우산국 정벌기사에서 울릉도까지의 방향 및 여정을 일관되게 강릉의 옛 이름인 하슬라주 및 명선로부터 기점을 잡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것은 바로 우산국 정벌 시에 이사부의 출항지가 강릉이었음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라 하겠다.

또한, 『삼국사기』樂志에 의하면, 최치원의 시에 향악잡영 5수가 수록되어 있고, 그 중 '금환(金丸)'이라는 제목의 노래에 순금이 바다의 파도를 잠재우게 한다고 하고 있어 당시 신라인들의 의식세계를 알 수 있는데, 강문동토성 내에서 출토된 금환도 전선이 출항할 시에 파도를 잠재울 목적으로 매납하였을 것으로 파악된다.

강문동토성에서 금환과 함께 수습된 의례용 기기인 기대 및 고배류의 출토사례를 종합해 볼 때, 이사부가 이곳에서 우산국을 정벌하기 위한 의식을 행하는 등의 준비를 마치고 출항하였던 출발점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적극적인 고고학자료라고 판단된다.

주제어 : 토성, 유사판축, 플라스크형 저장시설, 금환(金丸), 이사부(異斯夫)



www.kci.go.kr

# Ⅰ. 머리말

강문동토성은 강원도 강릉시 강문동 265번지 일원에 해당하는 죽도봉에 축조되어 있는 성이다. 이 토성이 확인되기 이전 성내에는 이미 경포대 현대호텔이 건축되어 운영되고 있었는데, 평창 동계올림픽을 대비해서 호텔건물 확장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유구가 발견되어 조사가 이루어졌다.

토성은 동쪽에 바로 동해에 면하여 있고 서쪽과 북쪽은 경포호에 접해 있으며 남쪽에 경포천이 흐르고 있다. 토성은 죽도봉 정상부에서 동쪽 사면 하단부까지 판축 및 유사판축 기법에 의해 구축되어 있는데, 평면은 동-서를 장축으로 하는 부정형 장타원형을 하고 있다. 규모는 동서 길이 404m, 남북 너비 50m~165m이며 전체 길이는 약 1㎞ 정도이다.[1]

한편, 토성 내에서 5세기 후반에서 6세기 초반으로 편년하는 신라유물이 수습되어 초축시기는 신라로 파악할 수 있으나, 당시 백제지역에서 유행하던 플라스크형 대형 수혈이 확인되는 이질성을 보여 주목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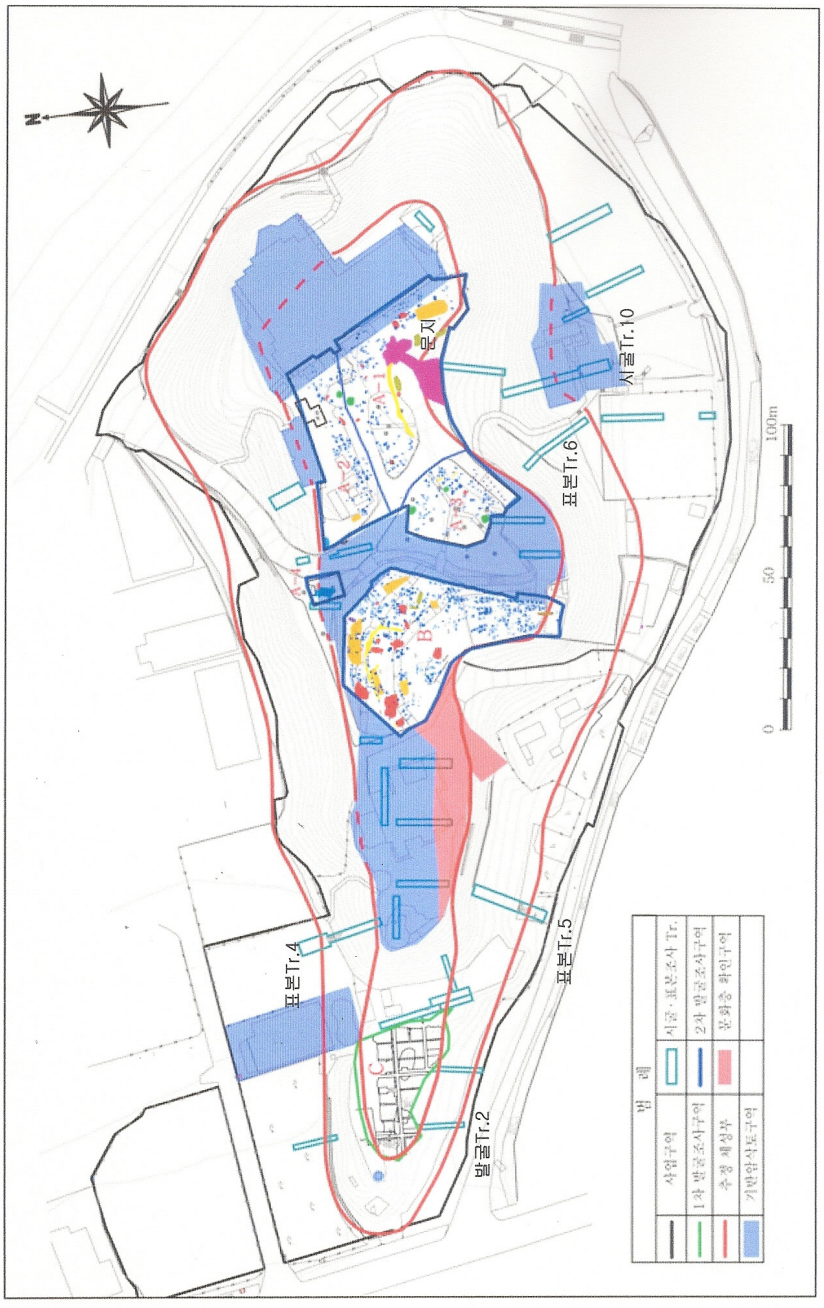
아직 발굴보고서가 미간인 상태라 여기서는 조사단의 결과보고서를 참고하며, 축조기법과 성격에 대해 검토하여 보고자 한다.

도 1. 강문동토성 전경(국강고고학연구소 제공)

1) 국강고고학연구소, 「강릉 경포대 현대호텔 신축부지내 유적 문화재청 전문가 검토회의 자료」, 2012.



www.kci.go.kr




도 2. 강문동토성 조사지역 현황도(국강고고학연구소 제공, 일부 삽입)



www.kci.go.kr

## Ⅱ. 고고학적인 조사[2]

강문동 경포대 현대호텔부지 유적은 경포대 현대호텔 신축과 관련하여 이루어졌다. 조사단은 먼저 표본 및 시굴조사를 통해 유구 또는 문화층이 확인된 지역을 중심으로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A지구 시굴조사 과정에서 구(舊)현대호텔과 관련된 시설부지가 확인되고 B지구에서는 舊경포관부지 일대가 기반층까지였으며 대부분 삭토된 상태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나머지 지역은 유구 또는 대지조성에 따른 문화층이 확인되어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다만 舊경포관부지가 있는 B지구 서쪽지역 중 남단지점의 문화층(유구) 확인지역은 이번에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발굴조사 결과, 체성 내부에서 배수시설(수문지) 및 구상유구, 대형수혈유구 및 주거지, 건물지, 집수시설과 같은 성내 중요 시설물이 다수 확인되었다. 그리고 체성 구간에 대한 Tr.조사에서는 대지조성 및 판축한 성벽의 구조가 확인되었다.

### 1. 성벽

#### 1) 기저부

기저부 조성에 대해서는 약보고서에서 파악이 가능한 유구를 대상으로 선정하였는데, A지역에서는 남사면에 설치한 표본 Tr.6과 시굴 Tr.10을, 그리고 C지역에서는 남사면에 설치한 발굴 Tr.2 및 표본 Tr.5, 북사면에 설치한 표본 Tr.4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도 2).

##### (1) A지역

먼저 표본 Tr.6은 원지형이 남아있는 남사면의 하단부인 해발 12m 정도의 트렌치 장벽에서 축조 과정에서 판축토의 밀림을 방지하지 위해 시설한 정지턱이 확인되었다. 또 동장벽 상단부 해발 13m~14m 지점에서 끝이 뾰족한 길이 110㎝, 직경 22㎝의 목주 흔적이 확인되었다. 조사된 성벽의 상단과 하단의 남북 거리는 직선으로 약 25m, 경사도는 66° 정도이며, 고도차는 11.6m 정도였다.[3]

---

2) 국강고고학연구소, 「강릉 경포대 현대호텔 신축부지내 유적 발굴조사 결과서」, 2013b ; 차재동·박성희·조인규, 「강릉 강문동 신라토성-강릉 경포대 현대호텔 신축부지내 유적」, 『중부지역 고고학조사의 최전선』, 2014.



www.kci.go.kr

다음 시굴 Tr.10은 원지형이 확인된 남사면의 하단부인 해발 10m 정도의 트렌치 장벽에서 축조 과정에서 밀림을 방지하지 위해 원지형을 턱이 지도록 조성한 정지턱이 확인되었다. 조사된 성벽의 상단과 하단의 남북 거리는 직선으로 약 10.8m, 경사도는 66° 정도이며, 고도차는 4.5m 정도이다.[4]

(2) C지역

먼저 발굴 Tr.2는 남사면 하단 기저부에 목주를 시설하여 유사판축으로 벽심을 조성하고 성 내측으로 역경사로 다져서 성토하였다.

다음 표본 Tr.4는 북사면부 하단에서 남쪽으로 7m 정도 떨어진 해발 4.5m ~3m 지점에서 성벽의 기저부로 판단되는 석축열이 확인되었다. 석축열의 폭은 5m 내외이고 경사도는 25° 정도이다. 사면부 하단에서 남쪽으로 2.5m 가량 떨어진 지점에서 토축의 분단선으로 판단되는 동서방향의 흑갈색점질토띠가 확인되었다.

토축 상단과 돌무지 하단의 남북 거리는 직선으로 약 19m, 경사도는 67.5° 정도이며, 고도차는 8.6m 정도이다.

다음 표본 Tr.5는 남사면부 하단 해발 1.7m 지점에서 토축의 기저부로 판단되는 폭 2m 정도의 동-서방향 석축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석축열에서 남쪽으로 3m 정도 떨어진 해발 0.2m 지점에서 돌무지가 노출되었다. 석축열과 돌무지 사이에는 벽심이 시설되어 석축열이 밀리는 것을 방지하고 있었다. 성벽 상단과 석축열과의 남북 거리는 직선으로 약 21m, 경사도는 66° 정도이며, 고도차는 10m 정도이다.

2) 체성

A지역에서 확인된 성벽 구간은 지형이 남서 방향으로 떨어지는 사면부로서 성벽의 축조는 기반암 및 구지표를 계단식으로 정지한 후 이루어졌다. 정지된 바닥면 위로는 판축한 성벽이 확인되며 일부 토층이 수직으로 끊어지는 양상이 확인되어 축조 분계선이라고 추정하였다. 축조 방향은 저지대에서부터 고지대 방향이라고 판단된다. 판축토의 하부에는 기반암을 굴착한 너비 60㎝ 내외의 수혈선 6기가 확인되며 간격은 중간부분을 제외하면 3m 내외로 일정하다. 하단부 수혈 중 3기에서는 내부에 목주흔이 확인된다. 목주흔은 성벽의 상단부와 남쪽 확장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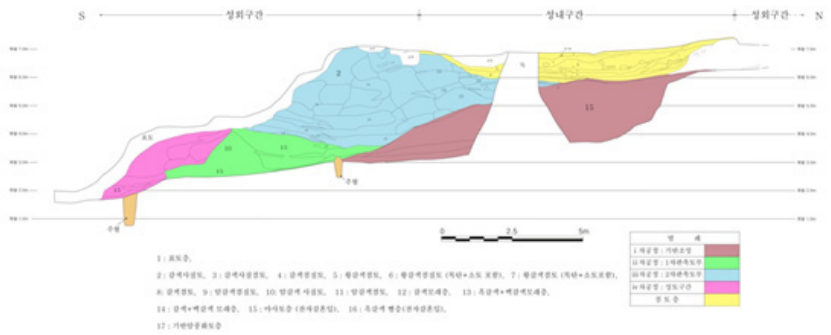
3) 국강고고학연구소, 앞의 글, 2013b, 79~81쪽.
4) _____, 앞의 글, 2013b. 73~74쪽.



www.kci.go.kr

의 평면에서도 확인되는데 평면에서는 2열의 주혈이 1.8m 내외 간격으로 평행하게 진행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확인된 주혈은 성벽 조성과 관련한 영정주로 판단되며 입면에서 목주의 형태가 확인되고 있다. 일부 목주 내부에는 모래가 채워져 있어 사용된 목주를 빼낸 후 모래나 흙을 채워 넣었던 것으로 보인다.[5]

한편 C지역 남벽 서단에서 조사가 이루어져 단면도가 작성된 발굴 Tr.2(도 3)를 중심으로 체성 축조기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6]



도 3. 발굴 Tr.2 단면도(국강고고학연구소 제공)

(1) 1차 판축토루 축조

1차 토루는 성벽의 중심부 외측에 조성한 것으로 2단계에 걸쳐 판축작업이 이루어졌다. 먼저 1단계 판축은 기반조성과 관련된 성토층 외측 주혈에서 약 2.5m 정도 떨어져서 확인된다. 1단계 판축은 흑갈색점토, 갈색사질점토, 모래를 주재료로 교차판축 하였으며 판축층의 두께는 약 10㎝ 내외이고 판축면은 수평을 이룬다. 토루를 조성한 이후에는 토루 상면에서부터 외측 114㎝, 내측 128㎝ 정도를 'ㄴ'형태로 절삭하였다. 절삭한 이후 단면 형태는 '△'형태를 보인다. 경사면의 각도는 내외측 모두 53° 정도이다. 1단계 판축 이후의 규모는 하단부 기준 너비 3.5m, 높이 1.6m 정도이다. 2단계 판축은 1단계 판축토루 내측 삭토면에 덧붙여서 이루어졌는데 내측으로 4.2m, 높이 1.9m의 규모로 판축하였다. 사용된 토양은 흑색사질점토, 황갈색사질점토, 모래를 교차판축 하였으며 황갈색사질점토의 비중이 높다. 판축면은 내측방향으로 약간의 경사면을 이루고 있으며 판축의 두께는 10㎝ 정도이다. 토루의 외측 끝단에서는 지름 30㎝에 깊이 100㎝ 규모의 주혈 1기가 확인되어 토루 조성과 관련된 시설물로 판단된다.

---

5) 국강고고학연구소, 앞의 글, 2013b, 34쪽.
6) _____, 앞의 글, 2013b, 56~60쪽.



www.kci.go.kr

완성된 1차 판축토루의 총 규모는 하단부 너비 7.7m, 높이는 1.9m이며 1차 판축토루의 축조는 축대와 같이 성벽이 외측으로 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축조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② 2차 판축토루 축조

2차 토루는 성벽 외측에 조성된 1차 토루와 성내측의 성토면 사이의 오목한 지형 위에 축조하였으며 성벽의 중심부에 해당한다. 2차 판축토루는 외측으로 1차 판축토루의 상면까지 확인되고 내측으로는 평탄지로 이어진다. 2차 토루의 축조는 먼저 오목한 지형의 중심부에 판축토루를 축조한 후 내외측면을 1차 토루와 같이 '△'형태로 절삭하였다. 중심토루의 규모는 하단부 너비 2.48m, 높이 2.96m 정도이다. 이후 내외측 절삭면에 덧붙여 판축을 하였으며 다시 사면으로 절삭하였다. 이러한 판축과 절삭 작업은 중심부 토루를 제외하고, 내외측 모두 2차례씩 이루어졌다. 덧붙여 쌓은 판축토루의 하단부 너비는 중심부를 기준으로 외측의 경우 각각 94㎝, 194㎝이며, 내측은 112㎝, 192㎝이다. 절삭면의 경사 각도는 중심부 토루를 포함하여 외측으로 67°→ 69°→ 45°, 내측으로는 60°→ 47°→ 45°로 확인되어 중심부에서 내외측으로 규모가 커질수록 하단부폭을 넓히고 경사도를 낮춰서 축조한 모습이 확인된다.

축조재료 및 판축의 양상은 중심토루 하단부에서 2m 정도는 흑갈색사질토의 비중이 높으며 모래, 갈색사질토를 혼입해서 교차판축하였다. 상단부의 경우 모래의 비중이 매우 높은 가운데 회청색사질점토를 혼입하여 사용하였다. 판축층의 두께는 약 10㎝ 내외로 판축면은 수평이다. 내외측에 덧붙인 판축토루의 경우 갈색사질토와 마사토, 모래, 뻘 등의 토양을 사용하여 교차판축하였으며 판축두께는 10㎝~20㎝, 판축면은 수평을 이룬다. 그러나 사용한 흙의 사용비중이나 위치는 각 판축토루 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판축재료의 사용은 성벽이 접합하는 부분의 응집력과 성벽의 내구성을 감안하여 의도적으로 재료의 사용을 구분한 것으로 추정된다.

(3) 외피 성토작업

내외 판축토루의 내외측 벽면에 덧붙여서 확인되며 판축토루의 보호를 위해 이루어진 피복 작업으로 추정된다. 외측의 경우 1차 토루의 외측면에서 확인되며 상단부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1차 판축토루 외측 끝단에서 약 2.3m 범위까지 확인되며 마사토와 갈색점질토를 사용하여 성토하였다. 내측의 경우는 2차 판축토루 끝단에서 3.5m 범위까지 확인되며 사용된 토양은 점토와 사질토, 마사



www.kci.go.kr

토를 이용하여 성토하였다.

풍화암반토로 성토한 정지면과 구릉 절삭면에서는 목책열로 판단되는 주혈이 확인되었다. 주혈은 녹갈색마사토, 뻘, 갈색점토 등 풍화암반토 바로 위층에서부터 굴착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 2. 문지[7]

문지의 위치는 토성의 남동쪽 계곡부에서 동쪽으로 치우쳐 위치하며 해발고도는 23m이다. 주향은 남북방향에서 서쪽으로 약 60°이다. 초기에 문지겸 수로로 이용되다가 개축하여 수로의 역할만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조사구간에서 확인된 문지 및 배수시설의 총길이는 (남-북)20.15m이며 외측으로 수혈선이 이어지고 있음을 볼 때 최대 길이는 30m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측벽의 깊이는 최대 1.2m 정도이다.

문지 조성은 판축한 성벽을 단면 'U'형태로 굴착하고 내부에 석재를 깔아 조성하였다. 바닥면은 북→남 방향으로 전체적으로 사면을 이루고 있으며 조사된 구간 내 최상단부와 최하단부의 고도차는 약 4m 정도 이다. 측벽은 석축시설이 확인되지 않으며, 조사 과정 중 내부에서 25㎝ 내외 너비의 탄화된 판재가 여러 매 확인되어 판재를 이용하여 조성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문지 외측벽의 평면형태는 점차 '八'자 형태로 벌어지고 직선으로 진행하며 서벽의 경우 8.4m, 동벽의 경우 5.7m 가량 진행하다가 다시 중심부 방향으로 1m 정도 직각으로 꺾여있다. 문지 외벽의 폭은 최대 14.2m 이다(도 4). 지형은 중앙부를 감싸듯이 타원형을 이루고 측벽까지 완만한 사면을 이룬다.

도 4. 문지 및 배수로 전경(국강고고학연구소 제공)

문지는 판축성벽을 수직으로 굴착하여 조성한 측벽이 확인되며 양 측벽이 평행하고 직선으로 진행한다. 규모는 길이 (남-북)5.5m, 폭 (동-서)3.1m이다.

---

[7] 약보고서에 해당하는 「발굴조사 결과서」(2013b)에는 주로 배수시설로 설명하고 있으나, 문지로도 추정하고 있고, 2014년도 발표 시에는 세부내용은 결여되어 있지만 문지로 표현하고 있어 보고문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배수로 항목을 문지와 배수로로 분리하여 전개하기로 한다.



www.kci.go.kr

도 5. 목주혈 상태

바닥면은 평탄하며 남-북 방향으로 중심부 주변으로 부석시설을 조성하였다. 문지 내부의 양 측벽에는 1.2m~1.5m 간격으로 목주혈이 확인되었는데 중간지점에서 확인된 목주혈은 주혈 내부에 소형의 잡석이 채워져 있다. 주혈의 크기는 지름 45㎝~54㎝이며 주혈의 중앙에 지름 10㎝ 내외의 목주가 박혀 있었던 흔적이 확인되어 목주를 세우고 주변으로 소형의 잡석을 채워 고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일부 주혈에서는 채움석이 측벽의 중상단부까지 확인되고 있다(도 5).

문지 외측 벽에서 확인되는 목주혈은 대부분 각재로 확인되었으며 바닥이 편평하고 별도의 수혈선이 확인되지 않으며 문지 바닥면보다 하부에서 확인되어 대지 조성 과정부터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8]

## 3. 배수로

### 1) 2차 배수로

2차 배수시설의 구조는 입수부, 통수부, 출수부로 구분된다. 먼저 입수부는 죽도봉 정상부 일대의 유수를 모으는 지점으로 근대 복토층 아래에서 확인되었다. 측벽은 확인되지 않으며 석축 및 부석시설만 확인되었는데 북서쪽으로 구상유구(배수로)와 이어져있다. 확인된 입수부의 규모는 동-서 방향 약 10m, 남-북 방향이 약 5.5m이다.

석축의 조성은 판축성벽 및 원지형을 'ㄴ'형태로 굴착한 후 흙과 부정형의 잡석을 채워서 조성하였으며 평면 형태는 '↓'의 모습을 보인다. 중앙부 3열이 만나는 중심부의 경우 251㎝ 폭으로 비교적 바닥면이 편평하며 좌우측 석축열에 비하여 30㎝~40㎝ 가량 고도가 낮다. 좌우측 석축과의 경계면에서는 비교적 큰 석재들이 불규칙하게 놓여져 있어 측벽이 존재했을 가능성도 있다. 입수부 바닥면에는 모래가 깔려 있고 입수부 하단부에는 동-서 방향으로 중·대형의 석재가 방향을 맞추어 놓아 단을 조성했던 것으로 추측된다.

통수부의 하부 pit조사 결과 동측벽 하단부에서는 2단의 석축이 확인되었다.

8) 국강고고학연구소, 앞의 글, 2013b, 24~31쪽.



www.kci.go.kr

측벽은 바닥면을 굴착한 후 조성하였고 서쪽에서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측벽을 조성했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배수로 바닥면에는 남-북 방향으로 중심부 주변에 석재를 조성하였는데 진행방향은 상단에서 중단부까지는 배수로 기준으로 서측으로 진행하다가 하단부에서 살짝 동측으로 휘어진다. 바닥면 석렬의 폭은 상단부와 하단부는 1.5m 정도이고 중앙부의 경우 판석과 활석 7매~8매 정도를 이용하였으며 폭이 2.8m 정도로 넓어진다.

2) 1차 배수로

1차 배수시설은 입수부 하부구조와 측벽의 조성 방법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과정에서 나타났다. 조사결과 2차 배수시설 하부에서 별도로 조성된 암거시설이 확인되었다.

측벽은 동벽에서만 확인되고 내측에서 통수부 중단부까지 이어진다. 이후 남쪽으로는 석재가 확인되지 않았으나 바닥면에 'U'자 형태로 굴착된 흔적이 보인다. 기존 배수시설에서는 동쪽에 위치한 석축의 내측 끝단에서 약 1.5m 안쪽에서 확인되었다. 그리고 2차 석축의 조성은 1차 측벽에 흙을 덧붙여 성토한 후 다시 할석과 강돌을 사용하여 쌓은 모습이 확인된다. 확인된 측벽의 평면 모습은 통수부에서 90° 정도의 각도로 꺾여 있으며 모서리는 완만한 타원을 이룬다. 최대 4단 정도가 잔존하며 하부에 소형의 강돌 및 할석을 쌓고 그 위에 부정형의 치석한 할석을 면을 맞추어 올려놓였다. 면석 안쪽으로는 소형의 할석들로 뒷채움하였다.[9]

## 4. 구상유구

최초 발굴조사에서 배수시설로 이어지는 구상유구가 서쪽에서 확인되었다. 그리고 1차 배수시설 조사 과정에서 측벽 앞쪽 동쪽에서 배수시설로 이어지는 구상유구가 확인되었다. 서쪽 구상유구는 중복 양상이 확인되고 평면은 넓은 타원형을 이루며 구상유구의 동쪽과 서쪽 끝부분의 경우 모두 남쪽으로 꺾여서

도 6. 서쪽 구상유구(동에서)

9) 국강고고학연구소, 앞의 글, 2013b, 24~31쪽.



www.kci.go.kr

도 7. 금환 출토 모습(국강고고학연구소 제공)

진행한다(도 6). 1차 구상유구는 후대 배수로와 대부분 중첩되어 정확한 규모는 확인되지 않으나 바닥면의 높이나 전체 규모가 거의 유사하여 개축해서 사용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서쪽 구상유구의 잔존 규모는 동-서 길이 25.3m 정도이며 폭 50㎝ 내외, 깊이는 최대 55㎝~60㎝ 정도이다. 서쪽 구상유구의 서측 바닥면에서 금환이 1점 출토되었다(도 7). 이 금환은 구상유구 바닥면 생토면까지 내려간 부토층에서 수습되어 인위적으로 매납한 것으로 판단된다. 동쪽의 구상유구는 서쪽의 구상유구와 거의 대칭되는 형태로 확인되었으며 이후 개축과정에서 폐기되었다.[10]

## 5. 추정 집수시설

추정 집수시설은 B지구에서 2개소[11], C지구에서 1개소[12]가 확인되었다. B지구 1개소는 중앙부에서 북동쪽에 위치하며 1개소는 남동쪽에 위치한다. B지구에서 확인되는 집수시설은 모두 유구 최하층에서 확인되며 기반암을 굴착하여 조성하였다.

### 1) 북동쪽 집수시설

이 집수시설은 A지구에서 내려오는 유수를 모으기 위한 약 488㎝ 폭의 인위적인 구가 조성되어 있다. 내부에 잡석이 일부 채워져 있고 하단가 집수시설로 이어진다. 집수시설의 벽은 급경사면을 이루고 평면은 원형에 가깝다. 내부 토층은 중단부까지 모래와 침전층이 확인되며 상단부는 소토와 사질토로 채워져 있어서 뒷날 인위적인 복토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집수시설의 규모는 길이 557㎝, 너비 531㎝이며, 깊이는 최대 134㎝이다.

### 2) 남동쪽 집수시설

이 집수시설의 평면은 'T'자 형태를 띠고 3개의 오목한 웅덩이가 확인되며

10) 국강고고학연구소, 앞의 글, 2013b, 32쪽.
11) _____, 앞의 글, 2013b, 51쪽.
12) _____, 앞의 글, 2013b, 62쪽.



www.kci.go.kr

그 사이에는 'U'자 형태의 구가 조성되어 이어져 있다. 각 웅덩이의 평면 형태는 모두 원형에 가까우며 벽면은 급경사면을 이루고 있다. 집수시설 내 각 웅덩이의 규모는 북쪽의 경우 지름 469㎝, 깊이 254㎝이며, 남쪽의 경우 지름 249㎝, 깊이 92㎝, 서쪽의 경우 지름 394㎝, 깊이 140㎝이다.

3) C지구 집수시설

S1E3 그리드 동단에서 1차 성토되어 서북 방향으로 형성된 곡부를 일부 굴착한 집수시설이다. 풍화암반토에 성토한 상면에 뻘층이 형성되어있으며 그 속에 목탄이 포함되어있고 연질토기가 출토되었다. 인위적인 매몰과 자연퇴적으로 크기가 축소된 후 집수시설의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파악된다. 북쪽은 경사가 완만하고 남쪽은 급경사이며 내부 층위는 겹을 이루고 있다. 부분적으로 불다짐되어 있으며, 목질이 남아있는 주혈이 확인되었다. 기대, 발형토기, 호 등의 유물 외에 갈색점토층에서 동물 이빨이 출토되었다. 일부 토기는 퇴적층을 2개 이상 관통하고 있다.

## 6. 대형 원형 수혈(저장구덩이)

대형 원형 수혈(저장구덩이)은 A-2지구에서 2기, A-3지구에서 3기가 확인되었다. 대형 수혈유구는 수혈의 깊이가 128㎝~243㎝ 정도이며 상단부에서 하단부로 갈수록 규모가 넓어진다. 바닥면은 대부분 편평하며 부석 및 갈돌, 지석, 토기편들이 수습되고 일부 유구에서는 벽에서 주혈이 확인되었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대형 원형 수혈 현황[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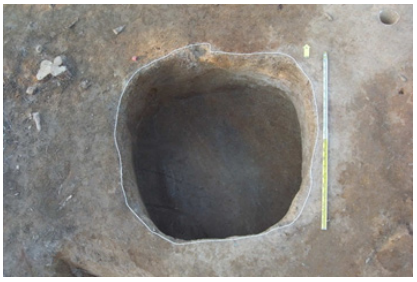
| 번호 | 위치 | 제원(cm) | | | 출토 유물 | 비고 |
|---|---|---|---|---|---|---|
| | | 상부 | 하부 | 깊이 | | |
| 1 | A-2 | 207×206 | 234×254 | 213 | 대부장경호, 부석 | |
| 2 | | 246×243 | 270×263 | 243 | 연질발 저부, 부석 | |
| 3 | A-3 | 270×233 | 270×254 | 205 | 지석, 기대편外 | |
| 4 | | 181×164 | 199×197 | 128 | 대부호, 대각, 연질고배대각, 연질배外 | 하단부 벽주혈 |
| 5 | | 240×252 | 304×310 | 184 | 갈판, 갈돌, 지석, 연질 및 경질토기편 | |

[13] 국강고고학연구소, 앞의 글, 2013b, 36쪽.



www.kci.go.kr

도 8. 1호 저장시설



도 9. 5호 저장시설

## 7. 수혈주거지

수혈주거지는 A지구의 A-1지구 동남쪽에서 1기, A-2지구 서쪽 끝단에서 1기가 각각 확인되었다. A-1지구에서 확인된 주거지는 대형주거지로 규모는 길이 (남-북)10.1m, 폭 (동-서)4.72m이며, 깊이는 최대 74㎝이다. 장축방향은 남-북 방향에서 동쪽으로 13.6°이다. 출입구는 남쪽에서 확인되며 바닥면에서 'ㄴ'형태로 단을 지게 조성하였다. 내부시설로는 아궁이 및 연도부가 있는데 동북쪽에 위치한다. 연소부는 원형으로 북벽에서 184㎝, 동벽에서 190㎝ 떨어진 곳이다.[14]

B지구에서 확인된 수혈주거지는 사면의 중단과 상단부에서 7기가 조사 되었으며, 평면은 장방형과 세장방형이다. 또한 B지구에서 확인된 건물지 및 수혈주거지는 5~8층으로 중복되어 조성된 것으로 확인되었다.[15]

## 8. 건물지

B지역에서 건물지 2동이 확인되었다. 수혈을 굴착한 후 모래 기초 등으로 초석을 설치한 건물지이며 일부 초석은 조잡한 적심시설이 확인된다.

1호 건물지는 남쪽 곡간부 하단에서 확인되었으며, 규모는 정면 3칸, 측면 2칸으로 추정된다. 주향은 남서향이다. 정면 주칸 거리는 130㎝~150㎝이며, 측면은 210㎝~230㎝ 정도이다.

2호 건물지는 북동쪽 중단에서 확인되었으며 초석과 기단시설 일부분이 확인되었다. 1호와 유사하게 모래 기초로 평평한 천석을 초석으로 설치한 건물지이며 주향은 북서향이다. 초석간의 거리는 210㎝ 정도이며, 기단은 할석을 이용하여 축조하였으며 1~2단 정도 잔존한 상태이다. 정면 2칸, 측면 2칸 이상의 규모로 추정된다. 유물은 토기편이 일부 출토되었을 뿐 기와편은 확인되지 않았다.[16]

---

14) 국강고고학연구소, 앞의 글, 2013b, 38쪽.
15) _____, 앞의 글, 2013b, 43~48·87쪽.



www.kci.go.kr

### 9. 수혈유구

B지역에서 3기가 확인되었다. 1호 수혈은 B지역 북쪽 상단에 위치하며 5호 주거지 남쪽에 위치한다. 유구 중심부에 후대의 부정형 수혈이 중복되고 남벽은 대부분 유실된 상태이다.

평면은 부정형이며 장축은 남-북 방향이다. 규모는 길이 300㎝, 너비 260㎝, 잔존깊이 25㎝ 정도이다. 내부시설은 북쪽 중심부에서 원형 수혈이 확인되었는데 내부에서 호형토기가 출토되었다. 전반적으로 목탄층과 함께 소결면이 확인되며, 유물은 북쪽에 치우쳐 옹형토기, 호형토기, 장란형토기 등이 출토되었다. 이 중 장란형토기의 내부에서 다량의 탄화곡물이 수습되었다.

2호 수혈은 1호 수혈 남쪽에 위치한다. 유구의 북쪽 중심과 서벽에 후대의 원형 수혈이 중복된 상태이다. 평면은 타원형에 가까우며 장축은 남-북 방향이다. 단면은 완만한 'U'자형이며 바닥면에 목탄층이 깔려있고 상면에 소결토가 두텁게 퇴적되었다. 규모는 길이 310㎝, 너비 220㎝, 잔존깊이 25㎝ 정도이다. 유물은 호형토기 구연부편, 발형토기, 구형의 소호, 컵형토기, 토제 방추차, 지석, 성격미상의 철기가 출토되었다.

3호 수혈은 B지역 동쪽편 중단에 위치한다. 주변에 다수의 수혈이 분포하고 남쪽으로 2호 건물지와 중복되며 층위적으로 Ⅴ층에 조성된 건물지는 후대에 조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Ⅵ층을 굴착하여 조성하였고 북벽과 서벽에 후대의 수혈이 중복된 상태이다. 남벽은 후대의 삭평으로 유실되었다. 평면은 부정형이며, 장축은 남-북 방향이다. 단면형태는 완만한 'U'자형이다. 바닥면은 소결된 상태이며 상면에 목탄층과 소토가 퇴적된 상태이었다. 규모는 길이 310㎝, 너비 280㎝, 잔존깊이 20㎝ 정도이다. 유물은 대형 옹, 호형토기, 발형토기, 장란형토기, 시루 저부편, 성격미상의 철기, 석기가 출토되었다.

## Ⅲ. 축조기법에 대한 검토

### 1. 기저부

강문동토성은 기반암 또는 생토면까지 굴착하고 기저부를 조성하였는데 크게 3가지로 파악할 수 있다. 첫째는 기저부에 석축을 먼저 배치하고 그 위에 유사

16) 국강고고학연구소, 앞의 글, 2013b, 41쪽.



www.kci.go.kr

도 10. 표본 Tr.4 기저부 상태

도 11. 표본 Tr.6 기저부 상태

판축 내지 판축기법으로 체성을 축조하는 방법이다. 북사면에 해당하는 표본 Tr.4(도 10)와 남사면에 해당하는 표본 Tr.5가 이에 해당한다. 표본 Tr.4의 석축열 너비는 5m 내외이고 표본 Tr.5의 경우 사면부 하단 해발 1.7m 지점에서 2m 정도 너비의 석축열이 확인되었다. 이 석축열에서 남쪽으로 3m 정도 이격한 해발 0.2m 지점에서 돌무지가 노출되고 있는데 석축열과의 사이에는 유사판축으로 이루어진 벽심이 시설되어 석축열이 밀리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결국 석축열의 너비는 5m 내외를 유지하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하겠다.

둘째는 기반암까지 굴착하여 정지턱을 설치하는 방법이다. 체성을 축조할 때에 판축토의 밀림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면부 하단에 암반 내부를 깎아내어 정지턱을 조성한 것이다. 표본 Tr.6(도 11)과 시굴 Tr.10이 여기에 해당한다. 표본 Tr.6은 해발 12m 지점에 시설하였으며 시굴 Tr.10은 해발 10m 지점에 시설하였다.

셋째는 발굴 Tr.2(도 12)와 같이 남사면 하단 기저부에 목주를 시설한 뒤 그 위에 유사판축으로 벽심을 조성하고 내측은 역경사로 다져서 성토하는 방법이다. 이와 유사한 사례는 증평 이성산성(도 13)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이 경우

도 12. 발굴 Tr.2 벽심상태

도 13. 증평 이성산성 북성 벽심상태



www.kci.go.kr

남·북성에서 공히 단면 삼각형 형태의 벽심을 쌓아 판축토가 흘러내리지 못하도록 조치하고 있어[17]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겠다.

## 2. 체성

강문동토성은 체성 하단부 기저부에서 상부에 이르기까지 유사판축과 판축기법에 의하여 축조하였음이 확인되었다. C지역 남벽 서단부 발굴 Tr.2에서 확인된 축조기법은 외벽 토루를 1·2차에 걸쳐 구축한 다음 내벽을 구축하고 그 내외벽 사이를 판축하여 체성을 축조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여기서는 크게 9차에 걸친 공정이 확인되었는데 차례대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① 성 내 능선 중간부분에서부터 남사면을 향해 'ㄴ'자 형태로 깊이 2.5m 정도를 삭토하여 기반암층까지 이르도록 정지작업을 한다. 삭토면의 외측(남측)은 완만한 경사면을 이루게 된다.

② 성 내의 정지된 기반암면 위에 내측에서부터 4.5m 정도 범위까지 2~3차례에 걸쳐서 성토다짐하여 매우 단단하게 한다. 여기에 사용된 토양은 대부분 암반풍화토이고 갈색점질토가 약간 혼입되어 있다. 성토층의 상면은 외측으로 사선을 이루고 있는데 이는 이후 체성벽을 판축하는 과정에서 삭토한 것으로 추정된다. 성토면의 외측 끝단에 지름 30㎝, 깊이 74㎝ 규모의 주혈 1기가 확인되는데 성토다짐과 관련된 목주흔으로 파악된다.

③ 성벽 중심부 외측에 벽심을 조성한 것이 성토층 외측 주혈에서 약 2.5m정도 내측에서 확인된다. 이 벽심의 조성은 흑갈색점토, 갈색사질점토, 모래를 주재료로 유사판축하였으며 판축층의 두께는 10㎝ 내외이다. 판축면은 수평을 이루다가 상부에서 내측으로 경사를 이루고 있다.

④ 토루를 축조한 다음 상면 외측과 내측을 사면형태로 절삭하여 단면 '△'형태의 벽심을 조성하였다. 이렇게 토루 양단을 절삭한 것은 협판을 사용하지 않아 정치하지 못한 결과로 파악된다. 경사면의 각도는 내외측 모두 53° 정도이고 벽심의 규모는 하단부 기준 너비 3.5m, 높이 1.6m 정도이다.

⑤ 단면 '△'형태의 벽심 내외측면에 덧붙여 체성 외측 토루의 규모를 키워 나가고 있다. 이때 벽심 내측 토루는 크게 2공정으로 이루어지고 4.2m 정도 경사면을 이루며 다져나가고 있다. 벽심 외측은 수직에 가깝게 다져나가고 있는데 지름 30㎝, 깊이 100㎝ 규모의 주혈과 접해있어 외벽면 축조로 파악된다. 사용된 토양은 흑색사질점토, 황갈색사질점토, 모래를 유사판축 하였으며 황

17) 심정보, 「증평 이성산성 축조기법에 대한 검토」, 『한국성곽학보』25, 2014, 15~19쪽.



www.kci.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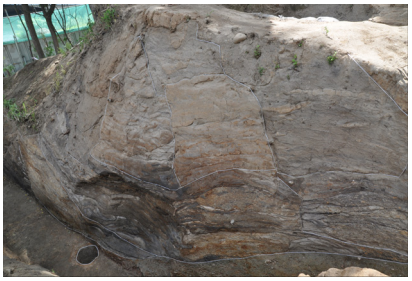
갈색사질점토의 비중이 높다. 이와같이 벽심에 덧붙여 축조한 1차 토루의 규모는 하단부 너비 7.7m, 높이는 1.9m 정도이다.

⑥ 성벽 외측에 조성된 1차 토루와 성내측의 성토면 사이의 오목한 지형 위에 축조하였으며 성벽의 중심부에 해당한다. 이 공정은 1차 판축토루의 상면에서 내측으로 유사판축에 의하여 경사면을 이루며 축조된 것이 확인되고 내측으로는 평탄지로 이어진다.

⑦ 2차 토루의 축조는 먼저 ⑥번 공정으로 평탄면을 이룬 지형의 중심부에 유사판축에 의해 중심토루를 축조한 다음 내외측면을 1차 토루와 같이 단면 '△'형태로 절삭하였다. 중심토루의 규모는 하단부 너비 2.48m, 높이 2.96m정도이다.

⑧ 중심토루 내외측 절삭면에 덧붙여 유사판축에 의한 토루를 구축한 다음 다시 사면을 절삭하였다. 이와같은 공정은 중심토루를 중심으로 내외측에 모두 2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 덧붙여 쌓은 토루의 하단부 너비는 중심토루를 기준으로 외측의 경우 각각 94㎝, 194㎝이며, 내측은 112㎝, 192㎝이다. 절삭면의 경사 각도는 중심토루를 포함하여 외측으로 67°→ 69°→ 45°, 내측으로는 60°→ 47°→ 45°로 확인되어 중심토루에서 내외측으로 규모가 커질수록 하단부폭을 넓히고 경사도를 낮춰서 축조한 모습이 확인된다.

⑨ 토루 외벽의 유실방지 및 보호를 위해 성토 다짐으로 피복하였다.



도 14. 발굴 Tr.2 체성 축조상태

도 15. 풍납토성 동벽 축조상태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강문동토성의 남벽 서단부 발굴 Tr.2에서 확인된 축조기법(도 14)은 체성 외벽에 벽심을 조성하고 이에 의지하여 토루의 규모를 키워나가거나[18], 중심토루를 축조한 후 그 내외벽에 덧붙여서 체성을 구축하는 공정[19]은 백제의 풍납토성 축조기법(도 15)과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백제와의 관련

18) 심정보, 앞의 논문, 2014, 15~19쪽.

19) 풍납토성 동벽 A지점에서는 중심토루의 내벽쪽으로는 5차례의 공정으로 덧붙여서 토루를



www.kci.go.kr

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표본 및 시굴 Tr.에서 확인된 체성의 규모는 A지역의 표본 Tr.6에서 기저부 너비 약 25m, 체성 높이 11.6m 정도이며, 시굴 Tr.10에서 기저부 너비 약 10.8m, 체성 높이 4.5m 정도이다. C지역에서는 표본 Tr.4에서 기저부 너비 약 19m, 체성 높이 8.6m 정도이며, 표본 Tr.5에서 기저부 너비 약 21m, 체성 높이 10m 정도를 나타내고 있다.

### 3. 문지

문지의 위치는 토성의 남동쪽 계곡부에서 동쪽으로 치우쳐 위치하며 초기에는 문지 겸 배수로로 이용되다가 개축하여 배수로의 역할만 한정한 것으로 추정된다. 문지는 판축성벽을 수직으로 굴착하여 조성한 측벽의 너비 즉 개구부의 너비는 3.1m이며 측벽의 길이는 5.5m, 측벽의 깊이는 최대 1.2m 정도이다. 개구부의 양 측벽에는 1.2m~1.5m 간격으로 목주혈이 확인되었는데 중간지점에서 확인된 목주혈은 주혈 내부에 소형의 잡석이 채워져 있었다. 주혈의 크기는 지름 45㎝~54㎝이며 주혈 중앙에 지름 10㎝ 내외의 목주 흔적이 확인되어 목주를 먼저 세우고 그 주변에 소형 잡석을 채워 고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일부 주혈에서는 채움석이 측벽의 중상단부까지 확인되고 있다.

문지 조성은 판축한 성벽을 단면 'U'자 형태로 굴착하고 내부에 석재를 깔아 조성하였다. 바닥면은 성 외측에 사면을 이루고 최상단부와 최하단부의 고저차는 약 4m 정도이다. 측벽에서는 석축시설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조사 과정에서 내부에서 25㎝ 내외 너비의 탄화된 판재가 여러 매가 확인되어 판재를 이용한 성문으로 추정된다.

문지 바닥면에는 (동-서)약 10m, (남-북)약 5.5m 규모의 부석층으로 된 입수부와 연결된 맹암거가 시설되어 있다. 시기차이는 많지 않으나 토사가 퇴적된 다음 바닥면 석렬의 폭이 상단부와 하단부에는 1.5m 정도로 넓어지고 있다. 중앙부는 판석 및 면석 7~8매 정도로 면을 맞추어 놓은 석렬이 너비 2.8m 정도로 넓어지고 있다. 조사구간에서 확인된 배수시설의 전체 길이는 (남-북)20.15m이며 성외측으로 수혈선이 이어지고 있음을 볼 때 최대 길이는 30m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

축조하고, 외벽쪽으로는 2차례(B지점에서는 3차례)의 공정으로 토루를 역경사로 축조한 것이 확인되었다(심정보, 「風納土城의 築造技法과 性格에 대한 考察」, 『文物硏究』7, 동아시아문물연구학술재단, 2003 ; 「풍납토성(風納土城)과 중국 고대도성과의 비교연구」, 『중국고대도성조사보고서』, 국립문화재연구소, 2005).



www.kci.go.kr

## Ⅳ. 강문동토성의 성격

강문동토성이 입지하고 있는 강릉지방은『삼국지』에 등장하는 동예의 고지(故地로 이 지역을 신라가 점유하게 된 것은 내물왕 이후부터라고 하겠다.『삼국사기』에 의하면 내물왕 40년(395) 8월에 말갈(靺鞨)이 북쪽 변방에 침입하자 군사를 내어 실직(悉直)벌판에서 크게 패배시키고 있으며[20], 내물왕 42년(397년) 7월에는 하슬라(河瑟羅)에 가뭄이 들고 누리가 생겨 흉년이 들어 백성들이 굶주리니 죄수 석방과 1년 동안 세금을 면제[21]하는 기사가 보이고 있어 뒷받침된다고 하겠다.

눌지왕 34년(450) 7월에는 하슬라성주 삼직(三直)의 고구려 변장 살해 기사[22]가 수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미 5세기 중반에는 강릉지역이 고구려와의 접경지대로서 신라의 관할에 놓여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자비왕 11년(468) 봄에 고구려와 말갈이 침입하여 실직성을 습격한 기사와 동년(同年) 9월에 하슬라 사람 중 15세 이상으로 니하(泥河)에 축성한 기사[23]가 주목된다.

신라가 니하에 축성한 사실은 최북단의 국경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내세운 것으로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이때 축조한 성이 산성인지, 평지 및 구릉성인지, 목책인지, 토성인지, 석성인지 밝혀진 것은 없다. 그러나 니하에 대한 위치 비정문제는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다.[24] 니하의 위치 비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축성에 동원된 지역이 '하슬라'라는 것이다. 따라서 하슬라 관내나 주변에서 찾는 것이 가장 신빙성을 담보하는 것이라 하겠다.

2012년 강문동 죽도봉에서 처음 확인된 둘레 1㎞ 정도의 토성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가깝게 접근해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이와 관련하여, 소지왕 3년(481) 3월에 고구려와 말갈이 북변을 침입하여 7성을 빼앗고 미질부로 진군하므로 이에 신라는 백제, 가야의 구원병과 함께 길을 나누어 막으니 적이 패하여 물러가는 것을 니하 서쪽에서 격파하고 고구려군 천여명을 참수하였다[25]는 기사가 참고 된다. 이 기사에 의하면 백제군이 니하에

---

20)『삼국사기』권3,「신라본기」, 내물니사금 40년 추8월조.
21)『삼국사기』권3,「신라본기」, 내물니사금 42년 추7월조.
22)『삼국사기』권3,「신라본기」, 눌지마립간 34년 추7월조.
23)『삼국사기』권3,「신라본기」, 자비마립간 11년조.
24) 니하의 위치비정에 대한 諸說에 대해서는 홍영호,「『三國史記』소재 泥河의 위치 비정」,『韓國史硏究』150, 2010 참조.
25)『삼국사기』권4,「신라본기」, 소지마립간 3년 3월조.



www.kci.go.kr

까지 도달하였다는 것이다. 니하 서쪽에서 벌어진 전투에 참여했던 것이 틀림없기 때문이다. 강문동토성은 백제군의 자문에 의해 대대적으로 축조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그리하여, 강문동토성은 백제의 판축기법에 의하여 축조되었고 백제 성곽에서 나타나는 플라스크형 저장시설이 성내에서 확인된 것이라 하겠다. 토성 내에서 수습된 유물이 5세기 후반에서 6세기 전반이라는 한정된 연대관도 이에 부합된다고 하겠다. 이것은 백제인이 직접 축성에 관여했거나 축성기법을 전수해 준 것으로 판단된다. 축성시기와 관련해서 다음 기사가 상정된다.

즉, 지증왕 6년(505) 2월에 실직주(悉直州)를 설치하고 이사부(異斯夫)를 군주(軍主)로 삼았다가[26] 7년 후인 지증왕 13년(512) 6월에 하슬라주(河瑟羅州) 설치와 군주 이사부의 우산국(于山國) 정벌기사[27]가 당시 강문동토성의 중요성을 부각시킨다고 하겠다.

신라가 북쪽 국경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하여 군사 및 행정의 중심지를 실직주에서 하슬라주로 옮긴 것은 군주 이사부도 실직(삼척)에서 하슬라(강릉)로 옮겨 주둔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슬라주의 주치소는 입지적인 조건으로 볼 때 구릉성에 해당하는 강문동토성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그리하여 이사부가 실직주 군주로 있던 7년이 주목되는 것이다. 이사부는 하슬라주 군주가 되자 바로 우산국을 정벌하고 있다. 이 사실은 이사부가 실직주 군주 재직시에 이미 전선을 건조하고 군사들을 훈련하여 우산국을 정벌할 준비를 마쳤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준비과정에서 강문동토성도 아울러 대규모로 축조하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토성의 경우 선행하는 토축 체성유구는 확인하지 못하였으며, 목책열로 보이는 주혈이 확인되었으나 토성에 선행하는 방어시설인지 정확한 용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28] 그러나 토성 내 뻘흙을 중심으로 한 판축대지 하부에서 선행하는 수혈주거지가 확인되고 있어서 선행하는 유구가 있었음을 뒷받침한다고 하겠다. 즉 A지구 수혈주거지 2기는 모두 뻘흙의 판축대지 하부에서 확인되었으며[29], B지구는 상층, 중층, 하층의 3개 토층[30]에 유구가 5~8층으로 중복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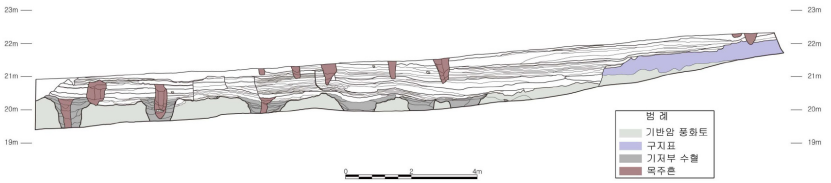
---

26) 『삼국사기』권4, 「신라본기」, 지증마립간 6년 춘2월조.
27) 『삼국사기』권4, 「신라본기」, 지증마립간 13년 하6월조.
28) '남쪽에서 확인된 주혈군은 A지구가 위치한 죽도봉 정상부에서 서사면 말단부 경계 지점에 남-북 방향으로 열을 맞추어 배치되어 있다. 산사면의 토사를 방지하는 용도이거나, 목책열일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국강고고학연구소, 앞의 글, 2013b, 53~54쪽)고 하고 있다.
29) 국강고고학연구소, 「강릉 경포대 현대호텔 신축부지내 유적 발굴조사 자문회의 자료」, 2013a, 사진 15~16.



www.kci.go.kr

어 나타나고 있는데, 중층유구가 뻘흙의 판축대지로 조성되어 있으며 대체로 공방지로 추정되는 소성유구를 중심으로 확인되고 있다. 하층에서는 수혈주거지가 확인되었으며, 상층에서는 건물지가 확인되고 있다.




도 16. A-2지구 판축대지 토층 입면도(국강고고학연구소, 2013b 보고문 전재)

토성 내의 가용면적을 넓히기 위하여 구축한 토루의 규모도 대규모이거니와 성 내부도 모두 판축하여 조성(도 16)한 것으로 이와 같은 대규모 토목공사는 이사부 같은 강력한 힘과 지도력을 갖춘 자라야만 가능하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산국을 정벌하기 위하여 이사부의 출항지에 대해서는 강릉과 삼척으로 크게 양분되어 있는 상태이다.[31]

삼척 출항설은 강원문화재연구소에서 시행한 요전산성으로도 불리우는 오화리산성에 대한 지표조사 보고서[32]에 근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현병은 '삼척 오화리산성의 지리적인 위치와 입지 그리고 토성 줄기와 추정 건물지 내에서 출토된 삼국시대 신라토기편과 기와편을 근거로 하여 오십천 하구인 삼척항 일대가 가능성이 매우 높다.'[33]고 하여 삼척일 가능성을 열고 있다. 그러나 토성 체성과 추정 건물지에서 수습된 토기편의 편년은 알 수 없으나, 기와편이 공반되고 있다면 신라에서 기와 사용이 대체로 6세기 후반을 올라가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사부의 우산국 정벌시기와는 시기차가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며, 더욱이 체성 내에 박혀있는 신라토기편은 채토지와 관련이 클 것으로 토성 사용시기와는 거리가 멀다고 하겠다.

삼척 출항설을 더욱 심화시킨 것은 유재춘[34]이다. 유재춘은 '지표조사에서

---

30) 본문은 없이 사진만 수록하고 있지만 사진 설명에 상층, 중층, 하층의 3개 토층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국강고고학연구소, 앞의 글, 2013a, 사진 24~41).

31) 이에 대한 선행연구는 한국이사부학회, 『이사부 삼척 출항과 동해비전』, 2010 참조.

32) 강원문화재연구소, 「삼척 요전산성 기본설계(지표조사) 보고서」, 2001.

33) 지현병, 「요전산성의 고고학적 검토」 향토역사문화의 탐구와 재창출을 향한 요전산성 학술세미나 발표집, 삼척문화원, 2002, 10~29쪽.

34) 유재춘, 「삼척지역 일대의 성곽 및 수군 유적 연구」, 『이사부 우산국 편입과 삼척 출항 심포지엄』, 강원도민일보·삼척시, 2010, 87~88쪽 ; 「삼척지역 일대 성곽 및 수군 유적 연구」, 『이사부 삼척 출항과 동해비전』, 한국이사부학회, 2010, 168~170쪽.



www.kci.go.kr

신라토기가 수습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미 삼국시대에 축조되어 고려시대에도 중요한 진성(鎭城)으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는 허목이 저술한 『척주지』에 "삼척진구루(三陟鎭舊壘)"[35]가 이곳에 있다고 하는 것에서 짐작할 수 있다. 이 三陟鎭舊壘가 어느 시기부터 있었던 것인가 하는 것은 알 수 없지만 우왕 10년(1384)에 토성 1,870척을 축조하였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그 이전부터 이곳에 성터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하여, 지표조사 보고서에 수록된 신라토기와 『척주지』의 三陟鎭舊壘를 같은 시기로 보고 있다. 허목이 『척주지』에서 기술한 三陟鎭의 舊壘는 『척주지』를 저술할 당시를 기준으로 우왕 10년에 축조한 토루를 지칭한 것인지, 우왕 10년에 축조한 토성 이전에 축조되었던 舊壘를 지칭하는 것인지는 발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확실치 않지만 지표조사 결과 내용대로라면 상기(上記)의 시대편년을 벗어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이후 유재춘의 삼척 출항설은 윤명철[36] 등에게도 영향을 주고 있다.

강릉 출항설은 심현용에 의하여 처음 제시하였으며[37], 출항지로는 남대천 하구의 안목항으로 추정[38]하였다. 이 강릉 출항설은 이성주[39], 이규대[40], 박도식[41] 등에 의하여 더욱 진전되었으며, 특히 이성주는 '예국고성(濊國古城)'을 하슬라의 치소성으로 비정하고 출항지로 남대천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강릉 출항설은 대체로 예국고성을 하슬라주의 치소성으로 하며, 안목항을 출항지로 비정하고 있다고 하겠다.[42]

그러나, 『삼국사기』 및 『삼국유사』에 의하면 이사부의 출항지가 강릉임을 예시하고 있다.

---

35) 허목, 『척주지』하, 府內(유재춘, 앞의 논문, 2010 재인용).

36) 윤명철, 「삼척지역의 해항 도시적 성격과 김이사부 선단의 출항지 검토」, 『이사부 삼척 출항과 동해비전』, 한국이사부학회, 2010, 188~241쪽.

37) 심현용, 「고고자료로 본 신라의 강릉지역 진출」,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29~55쪽.

38) 심현용, 「6~7세기 고고자료로 본 동해안과 울릉도에 대한 토론문」, 『이사부, 새로운 동해의 시대를 열다』 한국이사부학회 창립 기념 학술대회, 한국이사부학회, 2009, 163쪽.

39) 이성주, 「군주 이사부에 의한 울릉도 정벌의 역사적 맥락 재구성」, 『신라의 동해안 진출과 하슬라군주 이사부의 우산국 복속』, 해람기획, 2010, 9~75쪽.

40) 이규대, 「영동지역 소국의 영속관계와 이사부의 동북진출 및 우산국 복속」, 『신라의 동해안 진출과 하슬라군주 이사부의 우산국 복속』, 해람기획, 2010, 85~112쪽.

41) 박도식, 「이사부와 강릉과의 관계」, 『신라의 동해안 진출과 하슬라군주 이사부의 우산국 복속』, 해람기획, 2010, 115~159쪽.

42) 이상수, 「유적을 통해 본 이사부 출항지 검토」, 『이사부 삼척 출항과 동해비전』, 한국이사부학회, 2010, 78~82쪽.



www.kci.go.kr

① 우산국이 귀순하여 복속하고 해마다 토산물로 세공을 바치기로 하였다. 우산국은 명주(溟州)의 정동(正東)에 있는 해도(海島)로서 혹은 울릉도라고도 한다. 땅의 4방(方)이 1백리로 험함을 믿고 복속하지 않았다. 이찬 이사부(異斯夫)가 하슬라주 군주가 되어 우산국 사람들이 어리석으나 사나워 위세로서는 내항(來降)시키기가 어려우니 계교로서 복속시켜야겠다 하고는 이내 다수의 목우사자(木偶獅子)를 만들어 戰船에 나누어 싣고 그 나라 해안에 다다라 거짓으로 고하기를 '너희들이 만약 항복하지 않는다면 이 맹수를 놓아 밟아 죽이겠다'고 하니, 그 나라 사람들이 두려워서 곧 항복하였다.[43]

② 하슬라주[지금의 溟州이다] 동쪽 바다 가운데 순풍이면 2일 여정의 거리에 우릉도(于陵島) [지금은 우릉(羽陵)으로 쓴다]가 있는데 주위가 2만 6천 7백 30보이다. 섬 오랑캐들이 물 깊은 것을 믿고는 교만방자하게 신속(臣屬)하지 않았다. 왕이 이찬 박이종(朴伊宗)에게 명하여 군사를 거느리고 토벌케 하였는데, 이종이 木偶獅子를 만들어 대형 함선 위에 싣고 그들에게 위협해서 말하기를, '항복하지 않으면 이 맹수를 풀어 놓겠다.'고 했더니 섬 오랑캐들이 두려워하여 항복하였다. 이종을 포상하여 고을의 군주로 삼았다.[44]

이상을 살펴보면, 『삼국사기』의 이찬 이사부(異斯夫)를 『삼국유사』에서는 이찬 朴伊宗으로 기술하였으나, 지증왕 시기에 복속 당시의 우산국을 울릉도 또는 우릉도라고 기술한 섬을 木偶獅子를 이용하여 복속시키는 내용으로 볼 때 동일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삼국유사』에서는 우산국 정벌 이후에 하슬라주 군주로 삼은 것으로 기술하고 있으나, 이는 실직주 군주로 재임 시에 준비과정을 거친 것을 혼동하여 기술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삼국사기』「열전」에서 이사부의 우산국 정벌 시의 관직이 일관되게 하슬라주 군주[45]로 나타나고 있는 것에서 정리된다고 하겠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두 문헌에서 공통적으로 기술한 가장 중요한 핵심사항은 울릉도까지의 방향 및 여정을 일관되게 강릉의 옛 이름인 하슬라주 및 명주로부터 기점을 잡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바로 우산국 정벌 시에 이사부의 출항지가 강릉이었음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라 하겠다.

이사부는 바로 강릉 강문동토성에서 우산국을 정벌하러 출발하였을 것으로

43) 『삼국사기』권4, 「신라본기」, 지증마립간 13년 하6월조.
44) 『삼국유사』권1, 「기이」제2, 지철로왕조.
45) 『삼국사기』권44, 「열전」제4, 이사부조.



www.kci.go.kr

보인다. 이 토성 서안(西岸)에는 경포호가 펼쳐져 있으며, 남쪽에는 동해와 경포호를 연결하는 경포천이 흐르고 있다. 더욱이 우산국 복속이 이루어졌던 6세기경의 해수면은 현재보다 1.1m 정도 높았던 시기로 경포 하구역의 강문진 해안은 1910년 경과 큰 차이가 없지만 경포호의 경우 현재보다 호수면적이 1.5배 정도 큰 것으로 보아 6세기 경에는 그 면적이 더 확대되었을 것으로 판단 된다[46]고 하고 있어 신빙성이 크다고 하겠다. 동해의 세찬 파도에서 벗어나 있는 경포호는 전선을 건조하고 정박시킬 수 있는 천혜의 조건을 갖추고 있어 더욱 그러하다고 하겠다. 또한, 토성 축조에 사용된 흙이 대부분 뻘흙으로 이루어져 있어 인근의 경포호 및 경포천을 준설한 흙을 옮겨 쌓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강문동토성 내에 21g에 달하는 순금제 고리를 매납한 것이 확인되었는데, 이 금환(金環)은 내부가 비어있고 외만(外灣)한 형태로 팔찌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한 기물이다. 이와 같은 금환이 성곽 내에서 출토된 것은 처음 확인된 것으로 특이한 사례라 하겠다.

이와 관련하여, 『삼국사기』志, 器用조에 의하면, '진골은 금, 은과 도금한 것의 사용을 금한다.'고 하여, 진골도 금 또는 은과 도금한 기물까지도 사용하지 못하게 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강문동토성 내에서의 금환 출토는 매우 이례적인 것이다. 골품제도가 시행된 것이 6세기 말 진평왕 때로 보는 설을 감안하여 그 이전 시기에는 왕족들은 사용하지 않았을까를 고려했을 때 내물왕의 4대손인 이사부와의 관련을 지을 수 있는 유물로 파악할 수도 있겠으나 그보다는 다음 내용이 더욱 와 닿는다.

『삼국사기』樂志에 의하면, 최치원의 시에 향악잡영 5수가 수록되어 있는데, 그 중 '金丸'이라는 제목의 노래에

| | |
|---|---|
| 廻身掉臂弄金丸, | 몸을 돌리고 팔 휘두르며 금구슬을 희롱하니 |
| 月轉星浮滿眼看. | 달 흐르고 별 떠올라 눈에 가득 차누나. |
| 縱有宜僚那勝此, | 의좋은 동료가 있다한들 어찌 이보다 더 좋으랴? |
| 定知鯨海息波瀾. | 넓은 바다의 파도를 쉬게(잠재우게) 하는구나 |

라고 하여, 순금이 바다의 파도를 잠재우게 한다고 하고 있어, 당시 신라인들의 의식세계를 엿볼 수 있겠다. 옥편에 의하면, 덩어리 환(丸)자는 둥글

46) 장동호, 「항포구 자연환경 및 GIS 입지분석으로 본 우산국 정복의 출항지」, 『이사부 삼척 출항과 동해비전』, 한국이사부학회, 2010, 254~256쪽.



www.kci.go.kr

도 17. 기대
(국강고고학연구소 제공)

도 18. 고배류
(국강고고학연구소 제공)

도 19. 금환
(국강고고학연구소 제공)

환(圜)자 하고 호환되고 있어 이 순금제 고리가 바다의 파도를 잠재우기 위한 목적으로 토성 내에 매납한 것으로 파악된다.

강문동토성에서 금환과 함께 수습된 의례용 기기인 기대 및 고배류의 출토 사례를 종합해 볼 때 이사부가 이곳에서 우산국을 정벌하기 위한 의식을 행하는 등의 만반의 준비를 마치고 출항하였던 출발점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적극적인 고고학자료라고 하겠다.

## Ⅴ. 맺음말

강문동토성은 죽도봉의 정상부에서 사면 하단부에 이르기까지 유사판축 및 판축기법에 의하여 체성을 축조하고 대지를 조성하였음이 확인되었다. 이 토성의 남벽 서단부 발굴 Tr.2에서 확인된 축조기법은 체성 외벽에 벽심을 조성하고 이에 의지하여 토루의 규모를 키워나가거나 문지를 조성하는 기법은 증평 이성산성의 사례와 유사하다. 그리고 중심토루를 축조한 후 중심토루 내외벽에 덧붙여서 체성을 구축하는 공정은 풍납토성의 축조사례에서 찾을 수 있어 백제와의 관련성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또한, 토성 내에서 백제 성곽에서만 확인되고 있는 대형 플라스크형 저장시설이 5기가 확인되고 있어 더욱 그러하다고 하겠다.

이 토성은 이사부가 실직주 군주로 부임한 505년에서 하슬라주를 신설하고 군주로 부임한 512년 사이에 축조되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 시기에 戰船의 건조와 군사들의 훈련도 아울러 이루어졌을 것으로 파악된다. 그리하여 512년에 이사부가 하슬라주 군주로 부임하자마자 우산국을 정벌할 수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을 해명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삼국사기』 및 『삼국유사』에는 이사부의 우산국 정벌과 관련하여 울릉도까지의 방향 및 여정을 일관되게 강릉의 옛 이름인 하슬라주 및 명주로부터



www.kci.go.kr

기점을 잡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바로 우산국 정벌 시에 이사부의 출항지가 강릉이었음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라 하겠다.

또한, 『삼국사기』樂志에 의하면, 최치원의 시에 향악잡영 5수가 수록되어 있으며, 그 중 '금환(金丸)'이라는 제목의 노래에 순금이 바다의 파도를 잠재우게 한다고 하고 있다. 당시 신라인들의 의식세계를 알 수 있는 대목으로 강문동토성 내에서 출토된 금환도 전선이 출항할 시에 바다의 거센 파도를 잠재울 목적으로 매납하였을 것으로 파악된다.

강문동토성에서 금환과 함께 수습된 의례용 기기인 기대 및 고배류의 출토 사례를 종합해 볼 때, 이사부가 이곳에서 우산국을 정벌하기 위한 사전의식을 행하는 등 각종 준비행사를 마치고 출항한 출발점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적극적인 고고학자료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강문동 토성은 삼국시대 토성 축조 수법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일 뿐만 아니라, 『삼국사기』 및 『삼국유사』와 같은 문헌상에 수록되어 확인되고 있는 우산국 정벌의 출발점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감안하면 장차 높이 평가받을 수 있는 유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투고일 2015년 1월 30일 | 심사완료일 2015년 2월 26일 | 게재확정일 2015년 2월 28일 ▐



www.kci.go.kr

## 참고문헌

<사료>

『삼국사기』
『삼국유사』
『신증동국여지승람』

<국내>

강원문화재연구소, 『삼척 요전산성 기본설계(지표조사) 보고서』, 2001.
지현병, 「요전산성의 고고학적 검토」, 『향토역사문화의 탐구와 재창출을 향한 요전산성 학술세미나 발표집』, 2002.
심정보, 「風納土城의 築造技法과 性格에 대한 考察」, 『文物硏究』7, 동아시아문물연구학술재단, 2003.
_____, 「풍납토성(風納土城)과 중국 고대도성과의 비교연구」, 『중국고대도성조사보고서』, 국립문화재연구소, 2005.
심현용, 「고고자료로 본 신라의 강릉지역 진출」,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심정보, 『백제산성의 이해』, 주류성, 2009.
박도식, 「이사부와 강릉과의 관계」, 『신라의 동해안 진출과 하슬라군주 이사부의 우산국 복속』, 해람기획, 2010.
유재춘, 「삼척지역 일대의 성곽 및 수군 유적 연구」, 『이사부 우산국 편입과 삼척 출항 심포지엄』, 강원도민일보·삼척시, 2010.
_____, 「삼척지역 일대 성곽 및 수군 유적 연구」, 『이사부 삼척 출항과 동해비전』, 한국이사부학회, 2010.
윤명철, 「삼척지역의 해항 도시적 성격과 김이사부 선단의 출항지 검토」, 『이사부 삼척 출항과 동해비전』, 한국이사부학회, 2010.
이규대, 「영동지역 소국의 영속관계와 이사부의 동북진출 및 우산국 복속」, 『신라의 동해안 진출과 하슬라군주 이사부의 우산국 복속』, 해람기획, 2010.
이상수, 「유적을 통해 본 이사부 출항지 검토」, 『이사부 삼척 출항과 동해비전』, 한국이사부학회, 2010.
이성주, 「군주 이사부에 의한 울릉도 정벌의 역사적 맥락 재구성」, 『신라의 동해안 진출과 하슬라군주 이사부의 우산국 복속』, 해람기획, 2010.
장동호, 「항포구 자연환경 및 GIS 입지분석으로 본 우산국 정복의 출항지」, 『이



www.kci.go.kr

사부 삼척 출항과 동해비전』, 한국이사부학회, 2010.
한국이사부학회,『이사부 삼척 출항과 동해비전』, 2010.
홍영호,「『三國史記』 소재 泥河의 위치 비정」,『韓國史硏究』150, 2010.
국강고고학연구소, 「강릉 경포대 현대호텔 신축부지내 유적 문화재청 전문가 검토 회의 자료」, 2012.
_____,「강릉 경포대 현대호텔 신축부지내 유적 발굴조사 자문회의 자료」, 2013a.
_____,「강릉 경포대 현대호텔 신축부지내 유적 발굴조사 결과서」, 2013b.
심정보,「증평 이성산성 축조기법에 대한 검토」,『한국성곽학보』25, 2014.
차재동・박성희・조인규,「강릉 강문동 신라토성-강릉 경포대 현대호텔 신축부지 내 유적」,『중부지역 고고학조사의 최전선』, 2014.



www.kci.go.kr

Abstract

# Construction Techniques and Characteristics of Gangmundong Earthen Fortress in Gangneung

Sim, Jeong-Bo

Gangmundong Earthen Fortress is located on the Jukdo peak and the address of the area is 265, Gangmun-dong, Gangneung City, Gangwon Province. Before the fortress was found, Hyundai Hotel Gyeongpodae was constructed and run. As the hotel was considering its extension before the 2018 Winter Olympics in Pyeongchang, an archaeological study was carried out, thus leading to the discovery of the fortress.

The earthen fortress meets the East Sea in its east and the Gyeongpo lake in its north and west. In its south, the Gyeongpo creek flows from the Gyeongpo lake to the East Sea.

From the top of the Jukdo peak to the bottom of the slope, the semi or real rammed earth technique was used for the construction of the fortress body and land formation. As for the western end of its south wall, a wall stiffener was installed in the outer wall of the fortress body in order to increase the size of the earthwork or to form the gate site, a technique that is similar to Iseongsanseong Fortress in Jeungpyeong. In another part of Gangmundong Earthen Fortress, the fortress body was constructed by adding materials to the inner and outer walls of the main earthwork, as in the case of Pungnap Earthen Fortress, thus meaning an affinity with Baekje. The fact that further demonstrates such an affinity is the discovery of five large flask-shaped storage sites in the earthen fortress; such storage characterizes Baekje's fortresses.

This earthen fortress would have been reconstructed extensively between 505 when General Yi Sa-bu was appointed as the governor of Siljik Province and 512 when Yi founded Haseula Province to serve as



www.kci.go.kr

its governor. During this period, combat ship building and military training would have taken place at the same time. This explains how Yi was able to conquer the State of Usan soon after he became the governor of Haseula Province in 512.

According to the historical document *Samguksagi Akji*, A poem by Choi Chi-won called “round lump of gold” says that “pure gold calms the sea.” This poem leads us to infer what the people of Silla believed. In the same vein, the gold ring that were excavated in Gangmundong Earthen Fortress would have been buried there when combat ships went into battle, in an attempt to calm the sea.

Ritual objects such as *gidae*s and *gobae*s that were discovered with the gold ring in the earthen fortress also serve as precious archaeological evidence because they further strengthens the argument that Yi would have held a rite in thie fortress before the battle, wishing for conquering the State of Usan.

Key Words : earthen fortress, semi-rammed earth technique, flask-shaped storage facility, gold ring and Yi Sa-bu



www.kci.go.kr

www.kci.go.kr